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바람이 좀 불었지만 맑음

제목 : 공부 열심히 한 날? 방콕 여행?

오늘은 좋게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나쁘게 말하면 방콕을 했다. 일단 아침에는 늦잠을 퍼질러지게 잤다. 아무리 생각해도 잠병에 걸린 것 같다. 어떻게 11시까지 퍼졌는데도 계속 졸리지? 그래서 엄마가 소리 치고 나서야 멍기적 거리면서 일어났다. 아침은 (아, 사실 아침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생략. 일어나서는 산더미로 쌓인 영어숙제를 시작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이 영어숙제를 어떻게 이틀만에 끝내란 말인가. 그리고 요즘에 하는 하와이의 여왕이었던 '릴리우오칼라니 (Liliuokalani)' 이야기는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되어 도저히 읽을 맛이 안 난다. 점심으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쌀국수! 진에는 냄새 때문이랑 허벅지에 화상 사건 때문에 혐오했는데 먹고 나서는 반해버렸다. 내가 좋아하는 새우랑 닭 가슴살! 그리고 청양고추!!! 카시이거 없으면 맛이 안나! 그리고 아이스크림 쪽쪽 빨면서 다시 숙제 모드. 그러다가 엄마가 수학 하라 그래서 중단했다. 내가 수학은 진짜 싫어해서 징징대다 혼내서 했다. 치이. 다시 숙제하는데 너무너무 내가 놀고 싶었다. 그러나 그 율혹을 참지 아니하면 나중에 손이 만보일 정도로 숙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으리라. 저녁에는 맛있는 꼬기를 구워먹었다. 허브 솔트를 뿌리면 진짜 따봉이다. 근데 아버지는 탄다고 안해준다. 히! 이번에도 내가 사랑하는 된장찌개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청국장. 다 먹고 나서 또 숙제모드. 한 시간쯤 후에 끝났습니다!!! 구이에서 막 '미미파솔 솔파미레' 하면서 노래가 들리는 것 같았다.